

대학생의 미래주거 선호에 대한 연구

곽 경 숙†, 김 지 현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Preference for own House in Future

Kyoung-Sook Kwark†, Ji-Hyun Kim
Dept.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university student's preference for own house in future according to gender. This was the investigation of which 512 university students in Jeollabukdo province. In this statistical analysis, SPSS 11.5 program was utilized to calculate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lso, these materials were verified by factor analysis, t-test and χ^2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university students' future housing environment preferences has been appeared to be higher in the environmental equipment and the natural scenery. In the case of the gender variables was appeared to be higher for female than male students. The future housing area most of the university students wanted the medium city or over, 25~33 p'yöng apartment, 3 bed rooms, 2 bathroom. In case most students have a yard in their future house, they'd like to grow lawn and trees. Also, they wanted to live in a short distance with their future parents-in-law. Therefore, It was desirable that make a pla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uture-residing for the new generation.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preference, own house in future, housing environment

1. 서 론

주거는 오랫동안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은 건물을 만들지만 그 건물은 다시 인간을 만든다” 고 한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의 말은 주거는 인간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거는 거주자와 주택을 포함하는 용어뿐 아니라 가구와 설비, 이웃과 지역사회, 주거환경도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주거는 인간을 둘러싼 전체 환경에 비하면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실제로 인간에 대한 주거의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인간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생활은 스스로가 환경의 일부가 되어 깊이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확인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는 서로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박전자 2001).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양적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한 주거소유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거의 양적증가에만 노력해 왔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 Corresponding author, Tel : 063-850-6587, E-mail : kskwak@wonkwang.ac.kr

향상과 더불어 주거에 대한 욕구는 거주자의 행동이나 만족을 평가할 수 있는 주거의 질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으며 또한 주거환경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다 폭넓은 계층의 주거환경과 주거선호를 파악하여 어떤 주거문화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에 대한 의식과 주거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미래사회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이상과 가치관을 갖고 사회문화적 획일주의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신세대인 대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어질 것이다. 또한 이들의 주거선호는 주거의 수요는 물론 향후 미래 주거유형의 개발과 나아가 주택정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전라북도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에 어떤 주거를 원하는지 미래주거 환경에 대한 선호도와 대학생들이 원하는 미래주거를 남녀별로 분석함으로써 미래주거 양상과 변화를 예측하여 미래주거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일반적으로 주거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개념은 규범과 선호, 열망과 기대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분류된다. 규범은 주거에 관한 인간 행동에 대한 문화적 기준이나 법칙을 말하는 것이며, 열망은 개별 가구의 미래에 대한 욕구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기대와 선호는 미래의 조건이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Morris & Winter 1978).

주거선호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 구성에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거환경의 계획과 공급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유용한 주거 선호를 측정해 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선호를 추출해 내는 방법에는 설문조사나 행태분석을 통한 연구와 문헌중심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문헌중심 연구는 주거환경의 계획과 공급에는 응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계획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설문조사나 행태분석을 통해 주거선호를 파악해 왔다. 본 연구에서도 질문지를 통하여 대학생들이 원하는 미래주거를 파악하고자한다.

미래주거 선호 중 주거환경에 대한 선행연구를 먼저 고찰해보면, 조은정(1994)은 현재의 주거상태는 현재의 주

거선호라고 규정한 반면 5년 후에 이주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시하고 싶은 집의 특성'에서 미래의 주거선호를 추론하였다. 구체적으로 주변 환경의 쾌적성, 근린관계, 범죄안전, 재해안전, 학군, 교육환경, 체육여가시설, 공공시설서비스, 지역의 사회적 위치, 주택 등의 10개 주거환경요인에 대해 '현재의 주거환경에서 개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가장 시급한 4개를 골라 순위화 하도록 하여 주거 선호를 파악하였다. 윤복자(1999)의 연구에서는 주거 환경을 자연·근린환경, 주택의 심미성·물리적 계획, 편리성·안정성, 경제성, 입지성으로 나누어 남녀 대학생간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연·근린환경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요시하였고 편리성·안정성, 입지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중시하였다. 김진영(2001)외는 주거환경을 거주형태, 주택설비, 주택구조, 사회적 주거환경, 물리적 주거환경으로 나누었다. 또한 윤정애와 안옥희(1994)는 주거환경을 사회적 환경, 심미적 환경, 실내환경, 교통환경, 경제환경으로 나누고 있다. 김정희(2001)의 주거만족도 측정을 위한 주거환경을 내부구조 및 설비, 입지성 및 쾌적성, 교육 및 후생시설, 사회성, 사생활보장, 심미성 및 개성, 건강 및 안정성으로 7개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광경숙(2003)외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은 주거환경에서 내부구조 및 시설, 입지적 및 쾌적성, 교육 및 후생시설, 사생활 보장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생 또는 신세대의 주거 선호에 대한 선행 연구로 먼저 윤복자(1999)의 연구에 따르면 신세대는 인간적이고 개성적인 소규모 주거단지를 선호하였으며 이는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객관적인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고급자재와 시설, 개방적 구조와 친숙한 이웃, 여가시설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고 폐쇄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높았다. 또한 성장할 때 높은 수준으로 생활하였다고 생각할수록 고급 생활환경을 선호하며 공동 사용보다 개인 소유를 더 선호하였다. 선호하는 주택의 유형과 관련하여 주택산업연구원(199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향후 이주하여 살고 싶은 주택유형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일수록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는데, 20대가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었다. 윤정애와 안옥희(1994)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51.4%가 미래에 독립주택을, 41.0%가 공동주택을 선호하였다 남학생은 독립주택에 50.6%, 공동주택에

34.0%로 독립주택을 더 선호하고 있는데 비해, 여학생은 46.2%가 독립주택을, 49.5%가 공동주택을 선호하고 있어 남녀간에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김혜정(1996)의 연구에서는 신세대들이 원하는 주거지역으로는 서울이나 서울 근교를 원했고 주거환경으로는 소음이 적은 곳과 전망이 좋은 곳을 원했다. 또한 원하는 주택의 크기는 10~15평, 26~37평순이었고 침실은 3개정도, 욕실은 1~2개였다. 주택을 선택할 때 중요시 여기는 공간은 다른 가족 유형들은 모두 거실, 안방 부엌, 화장실 순으로 나타났는데 비해 신세대는 거실, 안방, 화장실, 부엌의 순으로 부엌보다 화장실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은실(1996)의 연구에서는 미혼 남녀는 80.2%가 원룸을 선호하고 그 유형에 있어서는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많았으며, 규모에 있어서는 16평~25평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또한 선호하는 주거특성을 살펴보면, 내부구조 및 설비에 관한 것들로 원룸주택에 있어서의 개방감, 변화있는 공간의 창조, 좁은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충분한 수납 공간 등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사생활 보호, 입지조건, 경제적 요인이었다. 정미란 등(1997)의 연구에서는 '시골보다 대도시에 살고 싶다'와 '시가지와 교외에 살고 싶다'가 각각 46%, 59.8%로 나타나 주택의 인접 환경으로서 자연적 환경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집을 '가족의 단란 장소'와 '심신 휴양 장소'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윤복자(1997)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언젠가는 단독주택에서 살 계획이라고 답하였고 처음으로 주택을 선택할 때 주택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침실 3개와 2.5개의 욕실이 있는 2층짜리 현대적인 집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고급스러운 주택의 설비를 바랬지만 처음 구입하게 될 집에서는 현실적인 평가를 하였고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신화경(2004)의 연구에서는 도심에서 떨어져 깨끗하고 넓은 신도시를 가장 선호하였고, 아파트 층수는 저층을, 주택규모는 현 주택보다 큰 규모를 선호하였다. 또한 남향의 주택을 선호하였고,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거실과 안방의 비율을 높게 두었다.

임희경(2005)의 연구에서는 광주지역 대학생들은 주거지로는 교통이 편리하고 유리한 도시 교외지역과 신주택 지구를 선호하였고, 주거선택 시 조건으로 남학생은 환경과 같은 외적요인에 대해 관심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주생활과 관련된 내부의 실리적이며 경제적인 조건을 중시하고 있었다. 선호하는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빌라, 일반아

파트 등 다양한 형태를 보였으며, 현재 거주하는 주택유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와 신철성(2002)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미래 주거선호 의식에서 환경설비와 편이성 요인의 점수가 높았으며, 미래의 희망주거에서는 조사대상자의 67.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27.6%)보다는 단독주택(43.3%)을 선호하고 있었다.

시부모와의 동거여부는 주거공간계획 시부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부모세대와 본인세대, 자녀들과의 동거는 우선적으로 방의수와 화장실의 수가 계획단계에서부터 달라져야한다. 그런 의미로 본 연구에서는 시부모와의 동거여부가 주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다루도록 하였다. 김수혜(1993)의 연구에서는 부산 시내 대학생들은 남학생 58.8%, 여학생 22.6%가 결혼 후 부모와 동거하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고정자(200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은 노인의 가족 관계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부모세대와 동거하기를 원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주거환경 선호도와 미래에 희망하는 주거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일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라북도에 소재한 대학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으로 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4년 5월 10일~12일에 대학생 5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내용의 타당도를 검토한 후에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6월 1일~6월 10일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600부를 배부하여 그 중 568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94.7%), 부실 기재한 것을 제외한 총 512부를 실제 분석 자료로 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질문지로서 윤복자(1997)와 윤정애, 안옥희(1994)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주거선호도에 관한 문항 34개, 미래주거계획에 관한 문항 7개,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위한 문항 8개로 총 4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거선호도의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을 각각 부여하여 측정하였다.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1.5 for Windows Program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산처리 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둘째, 미래 주거환경 선호도를 요인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성별에 따른 미래 주거환경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하였고 대학생들의 미래주거계획은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512)

변인	구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	262	51.2	
	여	250	48.8	
학년	1학년	113	22.1	
	2학년	127	24.8	
	3학년	132	25.8	
	4학년	140	27.3	
부모학력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66	12.9
		고졸	237	46.3
		대졸	209	40.8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99	19.3
		고졸	263	51.4
		대졸	150	29.3
부모직업	아버지 직업	전문직	93	18.2
		행정관리직 및 사무직	142	27.8
		기술직 및 생산직	115	22.5
		판매 및 서비스직	63	12.3
		농업 및 기타	99	19.3
	어머니 직업	취업주부	254	49.6
	전업주부	258	50.4	
가족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	102	19.9	
	200~300만원 미만	200	39.1	
	300~400만원 미만	98	19.1	
	400만원 이상	112	22.9	
주택형태	단독주택	179	35.0	
	아파트	272	53.1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61	11.9	
합계		512	100.0	

〈표 2〉 미래 주거 환경에 대한 선호도 문항 요인분석

요 인		요인부하량	
〈요인1〉 환경설비	통풍	.74	
	상하수도	.72	
	약취	.67	
	쓰레기·폐기물 처리	.67	
	도로, 교통	.67	
	전기, 전화통신시설	.67	
	소음의 정도	.65	
	가스, 지역난방 시설	.60	
	변량(%) = 27.56 고유택치 = 7.99 $\alpha = .88$		
	〈요인2〉 복지위생	종교시설	.73
아미용원, 목욕탕, 세탁소		.64	
아동·노인·사회복지 시설		.63	
분식점, 일반 음식점		.63	
의원, 한의원		.55	
헬스장, 수영장, 볼링장, 당구장, 체육도장		.52	
변량(%) = 9.03 고유택치 = 2.62 $\alpha = .77$			
〈요인3〉 이웃관계	지역에 사는 주민의 수준	.78	
	지역에 대한 이미지	.74	
	이웃 친척과의 관계유지	.64	
인구밀도	.61		
변량(%) = 6.24 고유택치 = 1.81 $\alpha = .73$			
〈요인4〉 의료공공	교육연구시설	.74	
	공공업무시설	.68	
	운동시설	.65	
	의료시설	.58	
	근린공공시설	.46	
변량(%) = 5.20 고유택치 = 1.51 $\alpha = .73$			
〈요인5〉 주거비용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71	
	주거유지비용	.68	
	지역에 대한 장래의 투자 가치	.58	
변량(%) = 4.69 고유택치 = 1.36 $\alpha = .65$			
〈요인6〉 자연경관	자연경관	.80	
	공원, 녹지	.73	
변량(%) = 4.22 고유택치 = 1.22 $\alpha = .74$			

IV. 조사결과 및 논의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은 〈표 1〉과 같다. 즉, 남자 대학생이 51.2%, 여자 대학생이 48.8%이었다. 학년 분포는 4학년이 27.3%로 약간 많았으나 고른 분포였다. 부모의 학력은 고졸인 경우가 각각 46.3%, 51.4%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행정관리직 및 사무직이 27.8%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술직 및 생산직 22.5%, 농업 및

기타가 19.3%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50.4%로 취업주부 49.6%보다 조금 많았다.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인 39.1%로, 주택형태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이 53.1%로 가장 많았다.

2. 남녀 대학생의 미래 주거환경 선호도

대학생의 미래 주거 환경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항 34개를 우선 요인분석 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이때 고유치 1 이상의 요인 6개가 선택되었다. 이를 주택의 환경과 설비, 복지 및 위생설비, 이웃과의 관계, 의료 및 공공시설, 주거비용, 자연경관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미래 주거환경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즉, 남녀 대학생의 미래 주거환경 선호도는 전체 평균은 3.83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설비가 4.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연경관이 3.98로 높았으며 복지위생이 3.52로 가장 낮았다. 복지위생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은 대학생들은 음식점 등을 제외한 다른 복지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연령적으로 낮은 점도 있겠고 또한 그것들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주거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p < .001$ 수준에서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환경설비($p < .001$)와 복지위생($p < .01$)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표 3> 성별에 따른 미래 주거환경 선호도

구 분	남 (n=262)	여 (n=250)	전체 (n=512)	t-value
환경설비	4.13	4.32	4.22	4.25***
복지위생	3.44	3.61	3.52	3.24**
이웃관계	3.63	3.72	3.67	1.59
의료공공	3.66	3.76	3.71	1.94
주거비용	3.82	3.95	3.88	2.45
자연경관	3.90	4.07	3.98	2.82
전체	3.76	3.90	3.83	3.92***

** $p < .01$ *** $p < .001$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들은 통풍, 상하수도, 악취, 쓰레기처리, 도로, 교통편의, 전기, 전화통신시설 소음, 가스, 지역난방 시설등 주거의 가장 근본적인 환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대학생간의 차이는 없었

으나 자연경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친환경주거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는 심은실(1996)의 연구와도 일치한 결과이다.

3. 남·여 대학생의 미래 주거선호

1) 미래 거주지역·주택의 종류·주택 크기에 대한 선호

대학생들의 미래주거선호 중 거주지역, 주택의 종류, 주택의 크기에 대한 선호는 <표 4>와 같다. 대학생들은 미래 주거지역으로 중도시(48.8%), 대도시(42.7%) 순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거지역으로 대도시를 남학생(19.5%) 보다 여학생(23.2%)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중도시에는 남학생(25.8%)이 여학생(23.0%)보다 높았다. 이것은 대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취업의 기회, 문화의 혜택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복자와 홍선경(1999)의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거주지역은 대도시나 대도시근교를 선호한다는 결과와, 임희경(2005)의 대학생들이 미래 주거지로 대도시의 조용한 교외지역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래 주거의 종류는 아파트(40.2%)였고 다음이 단독주택(20.5%) 이었다. 남녀간에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학생(18.0%)보다 여학생(23.3%)이 더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영순(1996)의 연구와 고등학생 대상으로 김정희(2001)의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희경(2005)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그들은 단독주택에 살기를 원했다. 그러나 정미란과 안옥희(200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들이 미래주거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의 50% 이상이 공동 주택화 되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신세대들은 주거의 편리성과 개별적인 삶을 중시하며 타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으려는 특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결과로 주택산업연구원(1996)의 연구에서 20대는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주택크기로는 25~33평 이하(48.8%)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13~25평 이하(26.6%), 33평 이상(23.0%) 순이었다. 남녀간에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간 평수인 25~33평을 남(24.6%), 여

〈표 4〉 성별에 따른 미래 거주지 · 주택의 종류 · 주택 크기 선호

n(%)

구 분		남 (n=262)	여 (n=250)	합계 (n=512)	비 고
미래 거주지역	대도시	100(19.5)	119(23.2)	219(42.7)	$\chi^2 = 9.42$ df=3 p<.05
	중도시	132(25.8)	118(23.0)	250(48.8)	
	소도시	20(3.9)	7(1.4)	27(5.3)	
	농어촌	10(2.0)	6(1.2)	16(3.2)	
미래 주택종류	아파트	92(18.0)	114(22.3)	206(40.2)	$\chi^2 = 34.81$ df=7 p<.001
	단독주택	73(14.3)	32(6.3)	105(20.5)	
	빌라	14(2.7)	33(6.4)	47(9.2)	
	주상복합아파트	19(3.7)	28(5.5)	47(9.2)	
	한옥집	7(1.4)	3(0.6)	10(2.0)	
	전원주택	44(8.6)	36(7.0)	80(15.6)	
	원룸	11(2.1)	3(0.6)	14(2.7)	
	기타	2(0.4)	1(0.2)	3(0.6)	
미래 주택크기	13평 이하	7(1.4)	1(0.2)	8(1.6)	$\chi^2 = 14.89$ df=3 p<.01
	13~25평 이하	82(16.0)	54(10.5)	136(26.6)	
	25~33평 이하	126(24.6)	124(24.2)	250(48.8)	
	33평 이상	47(9.2)	71(13.9)	118(23.0)	

(24.2%) 대학생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다. 33평 이상 큰 평수에서는 남자 대학생 보다 여자 대학생이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주거로 비교적 큰 평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를 요약해볼 때, 조사대상 대학생들은 앞으로 중도시 이상에서 25~33평의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미래 주거의 방의 수 · 화장실 수 · 마당조성에 대한 선호

대학생의 미래주거선호에 있어서 방의 수, 화장실 수와 마당 조성에 대한 선호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방의 수에 있어서는 방 3개를 59.4%로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4개(25.6%), 2개(13.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대학생들은 미래 주거에서 방 3개 정도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은 미래의 자녀들의 공간까지도 생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화장실 수는 2개(69.7%)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1개(15.6%), 3개 이상(14.6%) 순이었다. 남녀간에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남학생(32.6%)보다 여학생(37.1%)이 2개의 화장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실 3개 이상도 조사자의 10.4%가 선호하였다. 대학생들은 미래에 본인들이 살고자 하는 주거에서 희망하는 화장실 수는 현재에 경험으로 비추어 2개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윤복자와 홍선경(1999)의 연구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욕실 수와 이상적으로 바라는 욕실의 수를 조사한 결과, 현실적으로는 대다수가 1개~1½개를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상적으로는 2개~1½개를 희망하였다는 결과와 또한 화장실을 2개 정도를 원한다는 김정희(200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마당 조성에 있어서는 ‘잔디와 나무’에 4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못과 돌’(20.9%), ‘텃밭으로 채소 가꾼

〈표 5〉 성별에 따른 미래 주거의 방의 수 · 화장실 수 · 마당조성 선호

구 분		남 (n=262)	여 (n=250)	합계 (n=512)	n(%) 비 고
방의 수	원룸	4(0.8)	2(0.4)	6(1.2)	$\chi^2 = 1.62$ df=3 N.S.
	2개	36(7.0)	35(6.8)	71(13.9)	
	3개	160(31.3)	144(28.1)	304(59.4)	
	4개	62(12.1)	69(13.5)	131(25.6)	
화장실 수	1개	54(10.5)	26(5.1)	80(15.6)	$\chi^2 = 11.66$ df=2 p<.01
	2개	167(32.6)	190(37.1)	357(69.7)	
	3개 이상	41(8.0)	34(6.6)	75(14.6)	
마당 조성	잔디와 나무	108(21.1)	103(20.1)	211(41.2)	$\chi^2 = 14.56$ df=5 p<.05
	연못과 돌	56(10.9)	51(10.0)	107(20.9)	
	나무로만 꾸밈	19(3.7)	6(1.2)	25(4.9)	
	비워둠	10(2.0)	2(0.4)	12(2.3)	
	텃밭으로 채소 가꿈	36(7.0)	48(9.4)	84(16.4)	
	꽃나무 등 화단조성	33(6.4)	40(7.8)	73(14.3)	

다(16.4%) 순이었다. 남녀간에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남학생(21.1%)과 여학생(20.1%) 모두가 마당이 있다면 ‘잔디와 나무’로 조성한다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 ‘연못과 돌’로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9.4%의 여학생은 텃밭으로 채소를 가꾼다고 하여 좀더 생활인답고 여성다운 성역할의 일면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요약해보면, 연구대상 대학생들은 방 3개, 화장실 2개를 갖춘 주택에서 마당이 있으면 잔디와 나무로 조성할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미래주거에서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미래 가정에서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생활은 물론 주택설계 시부터 고려해야할 사항이므로 미래주거에서의 시·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가까운 동네에 거주하며’ (29.5%), ‘한 집이지만 구조를 다르게’(27.9%) 순으로 높았고 ‘부모님의 집에서 함께’(7.2%)가 낮았다. 남녀간에는 $p < .001$ 수준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자 대학생은 ‘한 집이지만 구조를 다르게’(13.1%)하여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을, 여자 대학생은 ‘가까운 동네에 거주하며’ (16.8%)사는 것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다. 이는 부모 자녀 가족이 별개의 가구를 마련하여 근거리에 살지만 실지로는 잦은 왕래와 협조를 하며 사는 수정 확대가족(채옥희 1994)의 일면으로 볼 수 있다. 남학생은 부모님을 ‘자신의 집에서 모시고 산다’ 11.7%로 많은 반면 여학생은 3.1%로 적은 것은 여대생들에게 고부갈등을 우려한 결과로도 볼 수 있으며 이는 김수혜(199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미래에 시부모님과 동거하려는 의식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었다. 개인적이고 남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신세대 특성과는 달리 ‘가까운 동네에 거주하며’ 살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 집이지만 구조를 다르게’ 하여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전통 효사상이 신세대로 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이어져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성별에 따른 미래주거에서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선호

구 분	n(%)			비 고
	남 (n=262)	여 (n=250)	합계 (n=512)	
자신의 집에서 모시고 산다	60(11.7)	16(3.1)	76(14.8)	$\chi^2 = 43.15$ $df=5$ $p < .001$
부모님의 집에서 함께	26(5.1)	11(2.1)	37(7.2)	
한집이지만 구조를 다르게	67(13.1)	76(14.8)	143(27.9)	
가까운 동네에 거주하며	65(12.7)	86(16.8)	151(29.5)	
독립해서 각각 산다	40(7.8)	61(11.9)	101(19.7)	
기 타	4(0.8)	0(0)	4(0.8)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주거환경 선호도와 미래주거선호를 알아봄으로써 미래주거 양상과 변화를 예측하여 미래주거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를 기초한 질문지법으로 전라북도 소재 남녀 대학생 512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6월 1일~6월 10일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1.5 for Windows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요인 분석, t검증, χ^2 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의 미래 주거환경선호에서는 환경과 설비, 자연 경관을 중시하고 있었다. 미래주거선호는 거주지로 중 도시 이상을 선호하며 미래주거로는 25~33평형 아파트에서 방 3개, 화장실은 2개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다. 마당이 있는 경우 잔디와 나무를 심어 가꾸고자 하였다. 시부모와의 동거여부는 '가까운데서 거주한다'를 가장 많이 선호하여 수정확대가족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이 미래 주거 계획 시 선호하는 주요 요인이 주택의 환경과 설비측면인 것으로 볼 때 주택의 구조적 시설이나 생활에 있어 편리함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걸치레보다는 실용적인 면을 추구하는 신세대다운 일면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중도시에서 25~33평 아파트로 방 3개, 화장실 2개를 원하는 것은 앞으로 주택 계획이나 설계 시부터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또한 마당이 있을 경우 마당 조성 계획은 나무와 잔디를 심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집합주택의 수요가 50% 이상인 것을 감안해볼 때,

근래 아파트 외부환경에 관심을 두어 녹지나 자연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도하고 아파트 내부 베란다 공간에 작은 화단을 만드는 것과도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래 주거문화의 중심이 될 대학생들이 중요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대학생들이 주택의 환경과 설비측면, 자연경관을 중시하는 결과를 미래의 주거계획이나 주거개발, 나아가 주택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1. 광경숙(2003). 고등학생의 생활양식과 주거만족도와의 관련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6(2): 13-25
2. 김수혜, 김병성, 박형중(1993). 부산시내 일부 대학생들의 노인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0(2): 56-72
3. 김정희(2002). 청소년의 생활양식, 주거만족도, 주거가치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김진영, 광경숙(2001)중학생의 주거환경이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13(2): 161-175
5. 김혜정(1996). 가족유형에 따른 공동주택 선호 성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1(11) 통권97: 27-38
6. 박전자(2001). **주거환경학개론**, pp 17-18, 세진사
7. 신화경(2004). 신세대들의 주거선호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13:1-12
8. 심은실(1996).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원룸주택선호도-

- 청소년기의 미혼 남녀를 중심으로- **전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9. 오찬옥(1983). 사회 인구학적 변인 및 물리적 환경 변인과 주거적응행태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윤복자(1997). **주거학 총서(I)**. pp 10-47, 신광출판사
 11. 윤복자(1999). 신세대 소비자의 주거기대와 선호를 통한 미래 주거행동예측 -한국과 미국대학생에 대한 비교 문화적 관점-. **국제협력공동연구과제**. pp 17-22
 12. 윤복자, 홍선경(1999). 신세대 소비자의 주거기대와 선호를 통한 미래 주거행동예측. 한국학술진흥재단, pp 3-40
 13. 윤정애, 안옥희(1994). 대구시 대학생의 주거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자원문제연구** 13: 207-219
 14. 임희경(2005). 대학생의 생활스타일과 주거의 선호성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4(6): 1047-1058
 15. 정미란, 안옥희(2001). 한일 여대생의 주거관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2(4): 163-171
 16. 정미란, 안옥희, 김재경(1997). 대학생의 주거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제50차 총회 및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51
 17. 주영순(1996). 청소년의 주거가치 유형과 주거만족도-서울시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8. 조은정(1994). 신세대 소비자의 주거가치와 주거선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 주택산업연구원(1996). 도시유형별 주택수요 분석.
 20. 채옥희(1993). **가정학원론**: 78
 21. Earl W. Morris & Mary Winter(1978). *Housing, Family, and Society*. John Wiley and Sons, New York